

농촌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

김연정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 for Older Women in Rural area

Yeon-J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충청남도의 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112명으로 설문지를 통해 친족과 비친족의 사회적 지지망(크기, 접촉빈도, 만족도),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우울을 측정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농촌여성노인의 친족만족도와 물질적지지가 우울에 직접효과를 갖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친족크기와 친족만족도는 물질적지지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여성노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친족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물질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여성노인, 농촌노인, 우울, 사회적지지망, 사회적지지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older women in rural area on agricultural off-season. The sample consisted of 112 women aged 65 years or over who lived in rural areas of Chung-Nam. Som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older women, including depression,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were measured using reliable instruments. Pathway analysis was used to test the proposed conceptual model designed to explain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betwee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Result, 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with kin network and instrumental support on depression was found. And indirect effect of network size with kin, satisfaction with kin network on depression was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pportive system to reduce depression and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kin network and instrumental support.

• Key Words : older women, rural area, depress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가속화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2015년도 기준으로 65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1]. 그런데 핵가족화, 도시화 등의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권위는 하락하고 있고, 노화로 인해 지적·신체적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대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소외와 우울, 고독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2]. 통계청[3]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3.1%이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의 우울 증상 비율은 38.1%로 남성 노인의 2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될 때 우울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4]. 그런데,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들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여성 노인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5]. 또한, 친한 사람과의 만남 및 사회활동 참여가 부족하거나[6],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가 작거나 친화욕구가 높을수록 우울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7] 정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의 우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인의 경우 도시에 거주 하고 있는 여성 노인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경우 가족 중심적 생활패턴으로 인해 가족에게 많은 기대와 애착을 갖기 때문에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한데[9], 남편보다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보람과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10].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지역으로 자녀들이 이동함에 따라 농촌 지역에는 독거 또는 노인 부부만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11,12]. 또한, 교통의 불편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로당 이외 여가나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점도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11,13]. 농촌지역은 일과 여가 시간의 분배가 안정적인 도시에 비해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김과 김[14]은 많은 농촌 노인들의 경우 농번기에는 하루 평균 8.62시간 이상을 농사일에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에도 TV시청이나 낮잠, 친척집 방문 등 일상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차원의 지원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14]. 이와

같이 최근에는 가족에 의한 지지를 노인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강조하고 자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사회전체가 여성노인의 우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다양한 사회적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1,15,16].

노인의 우울은 자살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16],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은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체계의 크기와 빈도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사회적 지지망과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 등의 기능적인 측면의 사회적지지를 포괄하고 있다[17].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독거노인[18], 여성 노인[19], 저소득 독거노인[20], 농촌노인[21]의 사회적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22], 자녀와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23]과 우울의 관련성이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농촌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망을 총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접촉빈도·만족도와 사회적지지, 우울 간의 영향력을 융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지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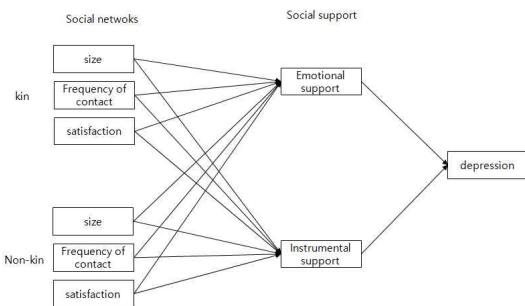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 지지,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 지지, 우울 간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1.3 연구 모형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 우울과의 경로는 농촌노인의 사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 감소에 직접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김[24]의 연구를 근거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Jeon과 Lubben[25]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크

기와 빈도,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물질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친족 사회적지지망(접촉빈도)은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비친족의 사회적지지망 크기가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가 우울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에 따른 우울로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빈도 등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의 만족도는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26]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망의 만족도를 주요 요인으로 추가하여 사회적지지와 우울로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이론적 배경

2.1 농촌여성노인의 우울과 사회적지지망, 사회적지지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기능이 위축되는 시기로 타 연령층에 비해 우울증의 이환률이 높은 시기이다[27].

통계청[3]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3.1%이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은 38.1%로 남성 노인의 2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여성노인들은 도시에 거주 하고 있는 여성 노인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8], 농촌의 남성노인과 비교해서도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이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어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기간이 길고[5], 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여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11,13]. 또한, 농촌여성노인들은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경험할 뿐 아니라 남성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간병의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8].

이와 이[27]는 농촌노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부족할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사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증 발병확률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의 정서적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과 백[29]은 농촌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높을수록, 주관적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배우자·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Sonnenberg 등[7]은 사회적지지망의 크기가 작거나 친화욕구가 높을수록 우울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김과 이[30]는 독거 노인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형제·자매·친인척과 같은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사회적지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우울성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부담과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등을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의 보호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24]은 노인들에게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기능저하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노화의 영역이므로 사회적지지의 강화를 통해 우울증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고 바 있다.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로 분류하여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지지의 역할을 탐색한 결과 가족에 의한 지지와 정서적지지가 우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의 집합체로서 크기와 접촉빈도, 친밀도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에로의 자원 유출 및 유입 즉, 개인이 이용가능한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선행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있다[31].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는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촌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사

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융합적인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충청남도 C시의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리 단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1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78.77세이었다.

3.2 연구 도구

3.2.1 우울

우울은 개인이 신체적·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기분을 의미한다[32].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15-item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5문항으로 단축한 Hoyl 등[33]의 GDS-5를 박, 등정, 이, 오, 홍, 조[3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 우울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 감퇴가 흔하고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환산하는 양분적도이며 역문항의 경우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합이 2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이 양성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46이었다.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인 ‘밖에 나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보다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의 문항을 제거한 후 측정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60이었다.

3.2.2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유대의 구조, 크기, 밀도와 동질성 등의 관계망을 의미하며 [35],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망은 친족과 비친족의 크기, 접촉 빈도, 만족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접촉빈도는 Jeon과 Lubben[2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크기는 연구 대상자가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족과 비친족의 총 인원수를 의미한다. 친족의 크기는

총4문항으로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비친족의 크기는 총 5문항으로 이웃, 면사무소 공무원, 자원봉사자, 종교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각각 측정하였다. 5점 Likert type으로 아무도 없는 경우는 0점, 1명은 1점, 2명은 2점, 3-4명은 3점, 5-8명은 4점, 9명 이상은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는 친족과 비친족을 만나거나 전화통화 하는 횟수에 대해 한 달에 1회 미만의 경우는 1점, 한 달에 1회는 2점, 한 달에 2-3회는 3점, 주 1회는 4점, 주 2-3회는 5점, 매일은 6점의 6점 Likert type으로 측정하였다. 만족도는 친족(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과 비친족(이웃, 면사무소 공무원, 자원봉사자, 종교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각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며, 5점 Likert type으로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을 의미한다.

3.2.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받은 자원을 의미한다[36].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백[37]이 개발한 도구를 김[38]이 단축한 도구 중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를 측정하였다. 이는 9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type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김[38]의 연구에서 .9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지지 .91, 물질적지지 .86이었다.

3.3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12월 동안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충남지역 C시의 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편의표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충남지역 C시의 면사무소 공무원과 각 마을의 이장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보조원에게 자료 수집 전 사전모임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진행절차, 설문조사 방법, 노인과의 의사소통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각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자유의지로 철회가능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스스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이 보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연구보조원이 대상자 1인에게 설문지를 읽어주고 답한 내용을 각 연구보조원이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설문항목이 누락된 1부를 제외하고 총 1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경로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39] 본 연구의 표본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IBM)과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사회적지지망, 사회적지지의 정도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모형의 분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들 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CMIN/DF,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를 검토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 우울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지지, 우울 정도는 <Table 1>와 같다.

먼저 친족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기는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친척 등의 친족 중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의 수로 평균 1.71명이었고, 접촉빈도는 4.54점으로 이는 매주 1회 ~ 3회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친족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4점으로 나타났다. 비친족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기는 이웃, 면사무소

공무원, 자원봉사자, 종교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비친족 중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의 수로 평균 1.67명이었고, 접촉빈도는 5.70점으로 이는 1주일에 2-7회 만나거나 전화통화하는 비친족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족도는 4.4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정서적지지 4.14 ± 0.81점이었고, 물질적지지 3.67 ± 1.01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평균 1.54 ± 1.29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증상이 양성인 대상자는 48명으로 43.9%를 차지하고 있었다.

<Table 1> Depression,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2)

variables	M±SD or n(%)	range
depression	1.54 ± 1.29	0-5
depression symptom positive	48 (43.9)	≥ 2
depression symptom negative	64 (57.1)	0-1
social networks		
kin network size	1.71 ± 0.99	0-5
kin frequency of contact	4.54 ± 1.99	1-6
satisfaction with kin	4.34 ± 0.90	1-5
non-kin network size	1.67 ± 0.99	0-5
non-kin frequency of contact	5.70 ± 0.86	1-6
satisfaction with non-kin	4.40 ± 0.79	1-5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4.14 ± 0.81	1-5
instrumental support	3.67 ± 1.01	1-5

4.2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경로분석을 시행하기 전,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의 범위가 -.01 ~ .80 이었고, 분산팽창지수의 범위는 1.107 ~ 3.347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정서적지지는 친족크기(r=.33, P<.01), 비친족크기(r=.23, P<.01), 비친족만족도(r=.29, P<.01)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물질적지지는 친족크기(r=.36, P<.01), 친족접촉빈도(r=.23, P<.05), 친족만족도(r=.50, P<.01), 정서적지지(r=.80, P<.01)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은 친족만족도(r=-.30, P<.01), 정서적지지(r=-.24, P<.01), 물질적지지(r=-.35, P<.01)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68**	1							
3	.41**	.40**	1						
4	.10	-.05	-.01	1					
5	.04	-.07	.03	.03	1				
6	.18	.05	.43**	.11	.14	1			
7	.33**	.16	.49	.23**	.18	.29**	1		
8	.36**	.23*	.50**	.17	.01	.17	.80**	1	
9	-.08	-.01	-.30**	-.16	-.07	-.14	-.24*	-.3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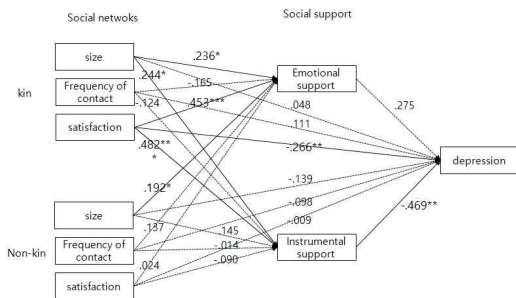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1 kin network size
- 2 kin frequency of contact
- 3 satisfaction with kin
- 4 non-kin network size
- 5 non-kin frequency of contact
- 6 satisfaction with non-kin
- 7 emotional support
- 8 instrumental support
- 9 depression

4.3 모형의 경로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CMIN/DF,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를 검토검토한 결과, 연구 모형은 추천기준치[40]를 보통 ~ 양호 수준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총 7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경로는 친족만족도($\beta = .266, p < .05$), 물질적지지($\beta = -.469, p < .01$)이었고 정서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친족크기($\beta = .236, p < .05$), 친족만족도($\beta = .453, p < .001$), 비친족크기($\beta = .192, p < .05$)이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경로는 친족크기($\beta = .244, p < .05$), 친족만족도($\beta = .482, p < .001$)이었다. 모형의 경로도해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Influence of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s on depression
 (* $p < .05$, ** $p < .01$, *** $p < .001$)

4.4 모형의 효과 추정치

본 연구의 모형에서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에는 친족만족도($\beta = -.266, p < .05$), 물질적지지($\beta = -.469, p < .01$)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고, 정서적지지는 친족크기($\beta = .236, p < .05$), 친족만족도($\beta = .453, p < .001$), 비친족크기($\beta = .192, p < .05$)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지지는 친족크기($\beta = .244, p < .05$), 친족만족도($\beta = .482, p < .001$)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친족만족도와 물질적지지에 의해 21%가 설명되었고, 정서적지지는 친족크기, 친족만족도, 비친족크기에 의해 32%가 설명되었으며, 물질적지지는 친족크기, 친족만족도에 의해 34%가 설명되었다.

<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depression	emotional support	.275	.000	.275	.21
	instrumental support	-.469**	.000	-.469**	
	kin network size	.048	-.050	-.002	
	kin frequency of contact	.111	.013	.124	
	satisfaction with kin	-.266**	-.101	-.367**	
	non-kin network size	-.139	-.015	-.154	
	non-kin frequency of contact	-.098	.044	-.054	
emotional support	satisfaction with non-kin	-.009	.049	.040	.32
	kin network size	.236*	.000	.236*	
	kin frequency of contact	-.165	.000	-.165	
	satisfaction with kin	.453**	.000	.453**	
instrumental support	non-kin network size	.192*	.000	.192*	.34
	non-kin frequency of contact	.137	.000	.137	
	satisfaction with non-kin	.024	.000	.024	
	kin network size	.244*	.000	.244*	
depression	kin frequency of contact	-.124	.000	-.124	.34
	satisfaction with kin	.482**	.000	.482**	
	non-kin network size	.145	.000	.145	
depression	non-kin frequency of contact	-.014	.000	-.014	.34
	satisfaction with non-kin	-.090	.000	-.090	

* $p < .05$, ** $p < .01$, *** $p < .0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5. 논의

5.1 연구 대상자의 우울

우선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을 살펴보면, 우울증상 양상을 보이는 대상자는 48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4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사회 재가여성노인 67.5%[41]나 도시의 저소득층 여성노인 59.4%[42]보다는 낮은 수치이었으나, 우리나라 전체 여성 노인의 우울 비율인 38.1%[3]보다는 높았다. 농촌여성 노인들은 농사일 하는 이외의 시간 동안 TV를 시청하거나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무료함과 지루함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43,44]. 특히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이 11-12월인 농한기이므로 더욱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나 농한기나 농번기 시점을 구분하여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을 탐색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임[45]은 농촌여성노인에게 8주 동안 음악에 맞춘 건강운동체조활동, 종이접기 및 풍선아트를 활용한 취미활동, 레크레이션 등을 포함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우울감이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됨을 보고한 바 있으므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한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동거자녀 등 친족 중심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친구나 이웃 등 비친족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노인에게 비해 우울감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친족과의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46]. 특히, 최근에는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자녀관계의 역할과 기능이 이웃에 의해 일부 대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21]. 그러나, 농촌여성 노인의 경우 힘들거나 중요한 일을 같은 마을의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43]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실제적인 지지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웃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2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 지지, 우울 간의 영향력

본 연구결과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망 중에서 친족만족도만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박과 배[47]는 사회적지지망에 친밀감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Jeon과 Lubben[25]은 비친족과의 접촉빈도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웃이나 친구와의 활발한 교류[46]나 관계만족도[48]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제시된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망의 크고 다양하다고 해도 친밀감이 낮거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오히려 우울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47]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친밀감과 만족도의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이웃에 의해 일부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자녀나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노인에게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특징이다[10,25,43]. 농촌의 경우 노인부부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관계에서 친밀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은 우울 감소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49]. 고[50]는 노년기 10쌍의 부부에게 33회에 걸쳐 서로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훈련, 노년기 성, 같이 할 수 있는 여가 탐색, 리마인드 결혼식,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등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정[49]은 은퇴 이전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 우울의 진행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년기 또는 초기 노년기 시기부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가를 탐색하고, 부부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한기에 적용된다면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지지만이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에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과 우울과의 경로를 파악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

가 어려웠으나, 이는 정서적지지가 미국 이민노인[25]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51], 농촌노인[24]의 우울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물질적지지는 아플 때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을 마련해 주는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37] 농촌의 경우 농한기에 농업일은 감소하지만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가사노동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노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52]. 또한, 여성노인들의 92.4%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의 어려움과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지지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53,54]. 그러므로 농촌여성노인들의 물질적지지 제공과 관련된 연구와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울의 고위험군인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지지 시스템구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에 사회적지지는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우울은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지지망과 지지시스템의 구축은 한 분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다학제 학문과 실무에서의 융합적인 노력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망의 구조 및 특성이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의 세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을 탐색하여 결과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GDS-5는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감소를 고려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등 세부적인 기능을 포함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우울에 대한 경로와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노인이 수혜받는 사회적지지와 제공하는 사회적지지를 모두 포함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확장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6 Elderly Statics", <http://kostat.go.kr/>
- [2] S. I. Jeong, B. K. Kim, (2016).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2), Vol. 1, No. 2, pp. 109-119, 2016.
- [3] Statistics Korea(2014). the Korean Elderly Survey : depressive symptom according to general feature among Elderly(over 65 years old). <http://www.kostat.go.kr/wsearch/search.jsp>
- [4] George, S., Alexopoulos,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Lancet, Vol. 365, No. 9475, pp 1961-1970, 2005.
- [5]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life of the woen elderly based on OECD statistics", 2012.07.07., <http://www.kwdi.re.kr>
- [6] S. D. Chung, M. J. Koo,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Vol. 52, pp. 305-324, 2011.
- [7] Sonnenberg, C. M., Deeg, D. J. H., van Tilburg, T.G., Vink, D., Stek, M. L., Beekman, A. T. F.,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In Later Lif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 25, No. 1, pp. 61-70, 2013.

- [8] H. W. Kang, K. M. Park., "Comparison of Correlates of Depression in Late-Lif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1, pp. 129-143, 2012.
- [9] M. N. Kim, J. H. Yang, "A Meta Analysi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Depression in Elderly Wom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3, No. 3, pp. 136-165, 2015.
- [10] E. J. Kang, G. H. Han, "Korean Women's Life Trajectories and Later liv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7, No. 3, pp. 99-126, 2002.
- [11] D. SW, J. S. Oh, "A Study of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Health and Social Service System Model to Maintain Independe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Older People in Rural Area",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12] Y. J. Soh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between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Focusing on Adult Children Network and Social Network", *GRI review*, Vol. 12, No. 3, pp. 311-339, 2010.
- [13] Y. R. Kim, S. A. Lee, K. Y. Kw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isure Condition and Need for Leisure Activities in Rural Area", *Social research*, Vol. 19, No. 1, pp. 105-140, 2010.
- [14] J. I. Kim, Y. J. Kim,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Groups According to Farm Work and Leisure Activity in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Vol. 19, No. 2, pp. 321-353, 2012.
- [15] Y. K. Kim, "Family change pattern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 258(2014-37), 2014.
- [16] B. S. Yoo, K. H. Jeong,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lderly Suicidal Idea : Focused on the Gyeonggi Province",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Vol. 13, No. 2, pp. 215-250, 2016.
- [17] O. K. Yang,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Aging",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1, pp. 101-131, 1997.
- [18] H. O. Kim, Y. S. Choi, J. H. Lee, A. R. Seo, K. S. Park, "The Association between Hopelessness,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Vol. 41, No. 4, pp. 195-204, 2016.
- [19] H. A. Kim, J. S. Lee,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between Physical Health and Depression of Elderly Women",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17, pp. 29-54, 2015.
- [20] S. H. Cho, H. S. Kim, "A Study on Depress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risisonomy*, Vol. 11, No. 11, pp. 55-71, 2015.
- [21] Y. R. Park, K. S. Park, E. H. Jeo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Negativity on Depressive Symptoms of the Rural Elderly",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2, No. 2, pp. 151-177, 2014.
- [22] E. N. Kang, H. J. Kim, B. O. Chung, "The Social Network Types and Depression among Old-Old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6, No. 2, pp. 229-255, 2015.
- [23] Y. E. Jang, S. Y. Kim,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with children on depression i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39, pp. 1-29, 2014.
- [24] Y. J. Kim,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decrease of depression of rural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aged*, Vol. 46, pp. 77-104, 2009.
- [25] H. S. Jeon, Lubben, J,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upports on depression symptoms: differential pathways for older Korean immigrants and Non-Hispanic white Americans", *Care Management Journals*, Vol. 17, No. 1, pp. 13-23, 2016.
- [26] K. S. Park, Y. R. Park, Y. S. Yum, "Social network type and well-being in Korean rural Elderly",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1, pp. 151-177, 2017.
- [27] S. A. Lee, K. M. Lee, "A Study on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n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1, pp. 209-226, 2002.
- [28] K. S. Park, Y. R. Park, "A Study on Social Network and Health of Older People in Rural Areas : A Comparison between Older Women and Older Me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1, No. 1, pp. 189-213, 2016.
- [29] H. S. Shi, M. J. Park, "Factors Affecting Feeling of Depression: Focused on the Rural Eld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50, No. 2, pp. 115-141, 2011.
- [30] E. J. Kim, S. Y. Lee, "The Informal Social Support Patterns and Depression in Rural Elders : Compared to Urban Elder",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8, No. 2, pp. 149-176, 2012.
- [31] W. S. Lee, (A) Study on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Clinical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h. D. thesis, 1992.
- [32] H. S. Kang, K. J. Kim,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among the Aged",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26, No. 4, pp. 451-459, 2000.
- [33] Hoyle, M. T., Alessi, C. A., Harker, J. O., Josephson, K. R., Pietruszka, F. M., Koelgen, M., Mervis, J. R. et al.,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five-item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 47, pp. 873-878, 1999.
- [34] H. S. Park, Y. J. DJ, C. I. Lee, J. E. Oh, S. H. Hong, J. Y. Cho, "Comparing Various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s in Elderly Pati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27, pp. 364-369, 2006.
- [35] H. W. Kang, A study on successful aging of Korean elders : Focused on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on successful aging. Kangnam University, Ph. D. thesis, 2012.
- [36] G. S. Oh, K. O. Oh, S. O. Lee, J. A. Kim, H. S. Kim, C. J. Jeong, S. J. Lee et. al., Social Support and Health, Hyun Mun-sa, 2002.
- [37]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Ph. D. thesis, 1985.
- [38] J. Kim, Effect of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on empowerment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eimyung University, M. S. thesis, 2013.
- [39] B. R. Ba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 -Principles and Practice- Chungnam, 2011.
- [40] J. P. Woo, Concept and Understanding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narae academy, 2012.
- [41] C. K. Kim, S. M. Park, "Gender Difference in Risk Factors for Depression in Community-dwelling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2, No. 1, pp. 136-147, 2012.
- [42] H. R. Kim,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pression in Low Income Women Elders in Urban Community", Crisisonomy, Vol. 10, No. 1, pp. 163-177, 2014.
- [43] E. Y. Lee, Depression experience process of the rural women elderly. Hanyang University, Ph. D. thesis, 2016.
- [44] H. I. Kang, "Leisure Activities Experienced by Old Women in Farm",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4, pp. 1377-1392, 2010.
- [45] J. S. Im, "A Study on the Effect that Leisure Programs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Elderly Women in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Vol. 2, No. 2, pp. 120-126, 2007.
- [46] S. J. Jang, S. Y. Kim, "The Social Network Typology among Elderly Living Alone in Busan, Depression, and Self-neglec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2, pp. 245-273, 2017.
- [47] C. W. Park, Y. Bae, "The Effects of Social

- Networks on Depression : Focused on Type, Size and Density of Network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9, No. 4, pp. 61-77, 2016.
- [48] K. C. Min, J. H. Lee,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3, pp. 515-533, 2008.
- [49] J. Y. Lee, H. J. Jeong,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Gender and Age Differenc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4, pp. 575-593, 2015.
- [50] J. W. Ko, “The Effect of a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for the Elderly Married Coup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4, pp. 119-143, 2011.
- [51] J. Y. Son,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elderly depression. Hanyang University, M. S. thesis, 2010.
- [52] K. Y. Lee, H. K. Cho, O. S. Kim, Y. S. Lee, S. M. Lee, D. S. Hong, H. S. Cho, Y. K. Kim, S. Y. Kim, S. I. Jeong, “Allocation of Time between Work and Leisure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0, No. 3, pp. 131-148, 2006.
- [53] Y. H. Oh, Health Condition of Eldery and Political Subjec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ay, 223, 2015.
- [54] J. W. Lee, Converged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5, pp. 237-246, 2016.

저자소개

김 연 정(Kim Yeon Jung)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장애, 정신건강 증진 및 재활, 외상 후성장